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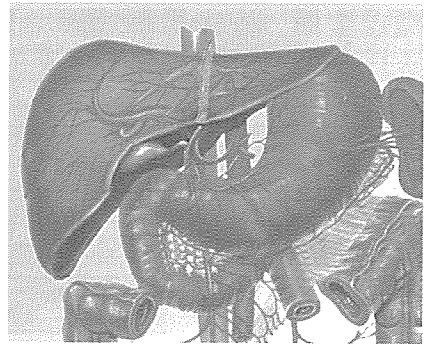
“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!” - 간암

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간암 유소견 현황(1999년 4월 중)

암 검진인원	지 부 별	간암 유소견자(36명)	간암 확진자(12명)
24,479명	서 울	9명	3명
	부 산	1명	1명
	대 구	1명	
	인 천	16명	
	경 기	2명	2명
	충 북	1명	
	대 전 · 충 남	6명	6명

간암 조기 발견 사례

지난 4월 건협 서울지부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김○○씨(남, 47), 신송임씨(여, 48), 손○○씨(남, 67) 등은 간암 유소견 판정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으로 판정되어 현재 수술 혹은 치료를 받고 있다. 평소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어 건협 부산지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김○○씨(남, 56)는 현재 시내 의원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



간암이란

- 간암은 증상을 느낄 정도면 아주 치명적이며 진행 속도도 매우 빨라서 발견 후 평균 3~4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.
- 간암은 대부분의 환자가 간경변증이나 만성간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암 자체의 특유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.
- 그러나 정기검사를 통해 조기발견이 가능하며,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암 중의 하나이다.
- 간암의 일반적인 증상은 식욕부진·권태감·구토증·위압박증·불규칙한 소화장애·체중감소 등이다.
- 특히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일단 간암을 의심해야 한다. 간암의 특이증상은 복통과 간비대·황달·빈혈·위장관 출혈·복수·간성 혼수 등이다.
- 간암을 예방하려면 우선 간암 유발의 주범인 B형 간염의 예방에 힘써야 하며,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받아 간암으로 진행되는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한다.
- 또한 금연·절주·위생적인 생활습관·고른 영양섭취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.

간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1~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
간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.